

## 머리글

이중현 요셉 신부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부위원장

###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마태 17,7)

찬미 예수님!

지난 9월 1일부로 교정사목위원회로 오게 된 이중현 요셉 신부입니다. 이렇게 소식지를 통해 먼저 인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교정사목으로 오면서 저는 위의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를 접한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변모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동안 익숙했던 스승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익숙함을 벗어난다는 것은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영광스럽게 변모한 예수님의 모습이 제자들이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익숙함의 틀을 깨지 못하고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서는 일으켜 주십니다. 직접 손을 대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손길로 인해 제자들이 느낀 두려움은 희망과 용기로 변화되어, 다시금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과 손길을 저 역시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보았습니다.

익숙했던 본당 생활을 떠나, 아직은 낯설고 어색한 교정사목이라는 곳으로 오게 된 저 역시도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본당에서의 사목이 사제 생활의 전부였던 저에게 본당이라는 익숙함을 벗어난다는 것은 매우 어색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익숙했던 사람들, 익숙했던 분위기, 익숙했던 생활이 아닌 전혀 새로운 것에 적응하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서는 익숙지 않은 것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들을 항상 당신의 방법으로 이끌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모세에게도 당신의 표징을 보여줌으로써, 두려워하는 그를 인도해주셨고, 거룩한 변모 앞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해서도 직접 당신의 손길을 내어주셨으며, 순교의 두려움 앞에서 힘들어하던 수많은 순교성인을 당신의 품 안으로 이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분명 당신의 방법으로 두려워하는 저를 이끌어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분명 제가 이곳에서 만나게 될 많은 분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발견하도록 이끌어주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족한 저를 통해서 당신의 선하신 뜻이 전해지길 원하실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느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은 분명 저에게 달린 몫입니다. 더 많은 기도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고, 저에게 주어진 몫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정사목을 후원해 주시는 모든 후원회원님과 그 가정에 하느님의 자비와 평화가 가득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들의 활동 이야기

### 각 교정시설 옥서기 지원사업



각 교정시설(성인, 청소년)에 여름철 무더위를 이겨내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얼음 생수와 특별 간식을 지원하였습니다. 서울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 모든 수용자에게 3차례씩 얼음 생수를 지원하였고, 고봉중고등학교와 분류심사원 청소년들에게는 7,8월 매주 1회(총 9회) 아이스크림을 지원하였습니다. 무더위와 코로나19로 지쳤을 수용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중헌 요셉 부위원장 신부님 환영식



8월 21일(금)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제 발령으로 이중헌 요셉 신부가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직원들 모두 신부님을 환영하며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 드렸습니다. 이중헌 신부는 “아직 잘 몰라 두려움이 있지만, 기도 안에서 잘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로써 함께 해주십시오”라며 인사를 전했습니다. 신부님께서 수용자와 출소자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저 혼자가 아니라 서로의 일이며 하느님 안에서

김영옥 마리아\_ 서울남부교도소 훈련원 대표봉사자

은 세상이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를 두고, 비는 주룩주룩 너무 많이 옵니다. 지겹도록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그립습니다. 작년엔 가뭄이 심해서 비가 그리웠는데 올해는 해가 매우 그립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오래 하다 보니 교정사목의 모든 것이 그립습니다.

교정사목에 처음 문을 두드린 것은 제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질문에 답을 찾고 싶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교육만 딱 받아 봅시다.’ 하던 마음이 교육을 받는 동안 봉사를 해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바뀌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겠고 어눌하고 두렵고 무섭고 낯설어하는 저를 친절하게 맞아준 선배 봉사자들이 계셨습니다. 왜 사형제도가 없어져야 하나, 왜 피해자뿐 아니라 수용자도 돌봐야 하나 하는 기타 등등이 제 관심사가 아니라 이쪽에 무지했고, 무지하다 못해 반대 생각을 하고 있던 저였습니다. 소극적이다 못해 땅속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봉사자의 자질이 어떠한지 본보기들을 보여주며 훌륭하게 이끌어주시는 분들 덕분에 여전히 저는 교정사목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느님 안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수용자를 사랑하며, 훌륭한 봉사자들을 사랑하는 봉사자가 되고 싶습니다.

대표봉사자가 된 첫해는 아무것도 모르고 전임 대표봉사자가 가르쳐 준 대로 했지만, 뒤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었던 봉사자 때와는 다르게 앞에서든 뒤에서든 진행해야 하고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땅속에 기어들어 가고 싶어라 했던 제 성격을 빠르게 고쳐야 했고, 배운 것을 속으로 집어삼키던 걸 남에게 전달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왜! 한다고 했을까! 다음에 한다고 할걸’하며 머리를 쥐어뜯으면서도 여전히 집중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한주 한주 해내고 있었으며, 저 스스로 대견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뒤에 든든한 봉사자들과 스스로 잘 따라오는 수용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느님께서 날 가르치며 이끌고 계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은 저 혼자가 아니라 서로의 일이며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성체를 영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되었듯이 매번 매 순간 감사하며 다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날이 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 요셉(1)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_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지금껏 지면을 통해서 살펴본 성경 속 인물들을 교정과 연관 지어서 묵상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직접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요셉이 처음입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은 ‘보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 한 명을 더 원하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건만, 요셉 본인은 풍파가 계속되는 것을 겪으면서 고난이 보태지는 것에 이름 탓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로 그의 인생은 드라마틱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이유로, 꿈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형들에게 ‘왕따’를 당합니다(창세 37,3-5). 열일곱의 나이에 형들에게 깊은 구렁이에 던져지고 다시 외국 상인들에 팔려 이집트로 갑니다. 낯선 땅, 낯선 이들, 말도 통하지 않는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서러운데 그곳에서 종살이합니다. 오늘날 ‘외국인 노동자’보다도 더 고된 그 종살이가 익숙해질 즈음, 성폭행 미수범으로 몰려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재판도 없었습니다. 눈물의 타향살이, 억울한 감옥살이 속에서 요셉은 이름 탓, 부모 탓, 운명 탓, 하느님 탓을 할만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한 번도 하느님 탓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를 팔아넘긴 그 고약한 형들을 원망하거나,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주인의 아내에게 어떻게 복수를 할까 꿈꿨지 않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그리고 감옥에 갇혀 옥살이할 때, 비슷한 이야기를 되풀이합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는 모든 일을 잘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자기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았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그가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그의 손을 통해서 잘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어 그의 시중을 들게 되었다(창세 39,2-4).

이렇게 해서 요셉은 그곳, 감옥에서 살게 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면서 그에게 자애를 베푸시어, 전옥<sup>1)</sup>의 눈에 들게 해 주셨다. (...)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으며, 그가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잘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다(창세 39,20-23).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느님께서 잘 이루어 주셨다.’

세상에나! 하느님께서 함께하셔서 무고한 요셉이 외국 땅에 팔려가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는 것이라고요! 맏소사! 그렇게 하느님이 돌보아주셔서, 잘 되게 된 것이 고작 그 종살이하는 주인과 같은 집에 머무르게 되고, 시중을 들게 되고, 감옥에서 교도관의 눈에 들게 된 것인가요? 주인과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밤낮없이 주인의 잔소리를 들었을 테고, 주인 아내의 유혹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그게 하느님의 자애로 이루어진 것이라고요?

1) 전옥 : 교도소의 우두머리

요셉의 마음입니다. 요셉의 시선이었습니다. 낯선 땅에 떨어졌지만, 요셉은 하느님을 어디서나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느님께서 함께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낯선 일이었지만, 수차례 무시당하고 여러 번 몸과 마음도 상해가며, 그 주인 눈에 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잠도 줄여가면서 연습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노력과 성실함, 자신의 천재성 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잘 이루어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감옥에서 파라오 시종들의 꿈 풀이, 그리고 파라오의 꿈 풀이를 할 때 요셉의 첫마디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꿈 풀이는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40,8) “저는 할 수 없습니다만, 하느님께서 파라오께 상서로운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40,16) 열일곱에 집을 떠나 서른 살 감옥에 풀려나 파라오 앞에 서기까지 십삼 년간의 타향살이, 종살이, 감옥살이하면서 왜 고향이 그리지 않았겠고, 돌아갈 수 없는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지 않았겠습니까? 눈물을 왜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작게나마 일이 잘 풀리는 것을 하느님 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인의 집에서 살게 되었을 때, 재산 관리인이 될 수 있을 때, 그때마다 일의 고단함, 비참한 환경에 투덜거리거나 지배당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느님을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모든 것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느님을 발견하려고 했으며, 그렇게 하느님께 시선을 떼지 않음으로써 하느님과 늘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주인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유혹을 거절하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담을 떠올리게 합니다. “보시다시피 주인께서는 모든 재산을 제 손에 맡기신 채, 제가 있는 한 집안일에 전혀 마음을 쓰지 않으십니다(...). 마님을 빼고서는 무엇 하나 저에게 금하시는 것이 없습니다.”(창세 39,8-9)

창세기 첫 시작의 인물인 아담은 하느님과 함께 지내던 에덴 ‘낙원’에서 ‘하느님처럼 될 수 있을 듯한’ 유혹에 유일하게 금했던 그 나무 열매에 시선을 돌리고, 따먹고, 하느님과 멀어집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인물인 요셉은 종종 낙원과 반대되는 개념으로도 쓰이는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혹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느님께 계속 시선을 머무름으로써, 언제나 하느님과 함께할 수 있게 됩니다. ‘내 덕에 잘 된 거야’라며 자신의 업적으로 돌려도 될 만한 것을 결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에덴 낙원에 있지 않았지만, 하느님과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가 어디에 있던지, 그는 그곳을 하느님과 함께 하는 낙원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요셉이 어릴 적 꿈이 실현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 본인은 그 꿈이 어떻게 실현될지 몰랐습니다. 아니 잊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역시 삶의 풍파 속에서 요동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셉의 객관적 삶의 여건들처럼 우리의 여건 역시 다양하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의 풍파 속에서도 요셉은 하느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언제나 하느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느님께 시선을 두어 하느님 곁에 머물 수 있을 때, 비참한 환경에 침몰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원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 창업자금 지원사업 (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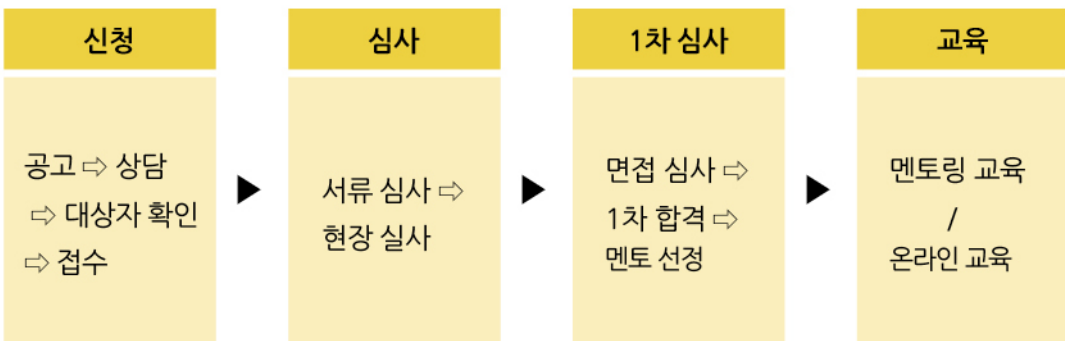
- 출소자의 자립을 위한 창업자금 융자지원 사업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어 창업 준비에 따른 계획과 일정이 미뤄지고 창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창업지원 프로그램 및 창업자금지원 절차를 변경하였습니다. 창업교육을 온라인 창업교육으로 전환하고 창업자금 신청을 수시 접수로 변경하여 출소자의 자립을 위한 창업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2020년 9월 1일부터 진행합니다.

### 1. 사업 요약 및 신청 대상

구분	요약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자금 최대 2,000만 원 이내 융자지원</li> <li>연 2%, 12개월 거치 48개월 원리금 균등 상환</li> </ul> </li> <li>● 교육 및 훈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서 작성 등 창업멘토링과 온라인 창업교육 등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li> <li>※ 교육·훈련에 참여하지 않으면 탈락 처리하며, 심사 결과 교육 훈련 면제 가능</li> </ul> </li> <li>● 경영지원 : 자금 상환 시까지 경영진단</li> </ul>
사업 용도	● 임차자금, 운영자금 용도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소한 지 3년 이내인 자</li> <li>● 사업장 또는 창업예정지가 서울, 경기, 인천 창업 예정자</li> </ul>

### 2. 진행 절차







### 3. 접수 방법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성, 상환 가능성, 자립 의지 등</li> <li>●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금액 조정될 수 있음.</li> </ul>
접수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공고일로부터 연중 수시</li> </ul>
서류심사, 현장실사 1차 심사(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류 접수 후 수시</li> </ul>
멘토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심사 결과 합격자에 한함</li> </ul>
멘토링교육 온라인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종별 멘토 선정 후 멘토링 교육 진행</li> <li>● 서울시 소상공인창업아카데미 (<a href="http://edu.seoulsbdc.or.kr">http://edu.seoulsbdc.or.kr</a>) 관련 업종 온라인 수강 신청 과정 이수 후 수료증 제출</li> </ul>
최종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시(업종별 멘토링 교육 진행 후 멘토 추천으로 개별심사)</li> </ul>
접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문 접수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20길 27 빛의 사람들 2층 (02862)</li> </ul>
상담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쁨과희망은행 02) 923-4726</li> <li>●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홈페이지 (<a href="http://www.catholic-correction.co.kr">www.catholic-correction.co.kr</a>)</li> </ul>
주의사항 (필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 내용을 숙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공고문을 충분히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li> <li>● 확인서류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탈락 처리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li> <li>● 심사 결과는 개별통지합니다.</li> <li>●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모든 사업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탈락 처리됩니다.</li> <li>●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대리인이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즉각 탈락 및 심사 취소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ul>

## 2020년 11월 광탄 사형수를 위한 위령미사는 취소되었습니다.

11월 위령성월을 맞이하여 광탄 나자렛 묘원에서 사형집행으로 목숨을 잃은 사형수 형제들을 위한 위령미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다만, 신부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함께 방문하여 기억하겠습니다.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50주년 기념 영상

1970년 4월 2일 '교도소 후원회'를 설립한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가 2020년 50주년을 맞아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50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영상입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QR 코드를 찍으면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하반기 정기 인사발령



8월 21일(금)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제 발령으로 이상원 사도요한 신부님은 개포동 본당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동안 수용자와 출소자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부임지에서도 언제나 영육간 건강하고 주님의 은총을 전하는 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 새로운 교정사목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8/12~9/9)

2020년 8월~9월에는 익명, 고아라 미카엘라, 권정자 미카엘라, 김현옥 마리아, 김흥애 아네스, 나영숙 글라라, 박소영, 박영화 글라라, 박인영, 서순자 엘리사벳, 송혜숙 임마콜라따, 신근철 라이문도, 신현애 비비안나, 안다남 마르타, 오영란 베로니카, 윤수복 켈마, 이동남 가밀라, 이상일 로사리아, 이선임 엘리사벳, 이소애 소화데레사, 이정애 카타리나, 이호강, 정복심 아네스, 조동순 데레사, 최영희 베네딕다, 최종희 안젤라, 한정희 말가리다, 홍일향 세라피나, 황귀봉 안드레아, 황향숙 마리나님께서 새로운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김영순 소화데레사, 박봉화 실비아, 박명자 율리아나, 박혜신 데레사, 박혜연 글라라, 안남숙 요안나, 이도금 막달레나님께서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밀린 후원금을 지로로 납부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한 장으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절약됩니다.

(장당 210원~240원 수수료 부과)

####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